

2015.06.05

## 관세청 '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BEST 5' 소개

관세청은 지난 2014년 규제개혁 부분에서 '국민생활불편 해소 우수과제(행자부장관賞) 및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(국무총리賞)'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관세청의 **규제개혁 우수사례 BEST 5**를 소개하였습니다.

### 👉 주요내용

#### 1. 환적절차 규제 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新 성장동력창출

- ▶ 환적화물 처리에 관한 특례 고시를 제정('14.9.1)하여 김포에서 인천공항으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해 **일괄운송절차를 적용**, 입항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 기재할 경우 **보세운송신고(승인) 생략**
- ▶ 개선효과
  - 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물류신속화로 당일 인천공항 연결 환적이 가능함에 따라 **신규환적 물동량(3천톤), 고부가가치(175억)을 창출**할 것으로 예상.
  - ② 향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화물 수요 창출을 통해 **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**

#### 2. 18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의 확인절차 대폭 개선

- ▶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는 더욱 강화하되,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**'세관장 요건확인 제도 개선방안'**을 마련하여 시행
- ▶ 요건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에 취약한 비정상 상황을 정상화 하여 불법(불량)수입 물품의 국내유통을 사전에 차단,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 해소를 통해 **연간 약 64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**될 것을 기대

2015.06.05

### 3. 환급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기업을 지원

- ▶ 환급액 확대를 통한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
  - 북한 위탁가공물품 간이정액 환급을 통해 **연간 10억원 환급 혜택** 추산
  - 불량품 소요원재료 손모량 포함하여 **연간 200억원 환급지원 효과** 예상
- ▶ 환급시스템과 절차개선을 통한 수출업체 지원
  -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서류 등의 **제출생략**
  - 보세공장별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체 지정을 **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일괄지정** 받을 수 있는 절차 도입
  - 중소기업인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**심사주기를 '1년'에서 '2년'으로 연장**, 심사부담을 완화, **관할지세관 외에 세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** 개선

### 4.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및 FTA 활용지원

- ▶ 기업,사람과 소통
  -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,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과 **건의사항을 수렴**
- ▶ 원산지검증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
  - 원산지 입증 자료와 검증기간의 단축을 위한 **내부 프로세스를 개선**
  - 원산지검증의 대상 범위를 수입물품 전체에서 일부로 **축소**
  - 원산지 입증을 **상대국 수출자, 생산자에게 책임**지도록 변경
- ▶ FTA활용을 위한 지원정책
  - FTA 활용 종합 지원체제(YES FTA) 운영
  - 원산지 관리 시스템(FTA-PASS) 개선 및 보급

### 5.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(TOUR-PASS) 구축

- ▶ 여행자 필요 정보(유의질병, 면세범위, 검역, 입출국 신고, 항공 스케줄 등)를 콘텐츠화하여 각 기관간 시스템에 연계 제공하는 **'Tour Pass' 개발**
  - 개통('14.6.12) 이후 1일 평균 6천명 접속·이용 손쉽게 해외여행 관련 정보 조회